

파인들이 꾸며낸 무서운 연극에 지나지 않는다.”³³⁾고 하여 <계축일기>의 편파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정통성 문제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광해군으로서는 영창대군의 죽음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4. 결 론

이상에서 살핀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선조 후기에 궁중문학이 출현하게 된 배경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임진왜란 이후의 시대상황이 왕을 절대적인 존재에서 상대적인 존재로 보게 되는 의식의 변화요, 다른 하나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국민들의 한글 사용이 생각보다 빠르고 깊숙하게 보급된 점이다.

조선조 전기의 작품 <강호사시가>나 <면앙정가>에는 왕이 칭송의 대상이어서 모든 것을 ‘ㄷ君恩이샅다’로 돌리는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왕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임진왜란 직후에 나온 작품 <고공가>나 <고공답주인가>에는 왕이라는 존재가 그 절대성을 상실하고 객관화된 대상으로 바뀌었다. 주인(왕)이 고공(신하)에게 몸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집안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고공들이 사심 없이 일해줄 것을 당부하고, 고공(신하)이 주인(왕)에게 고공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주인의 잘못도 서슴없이 지적한다.

임진왜란 이후에 나온 작품 <운영전>에는 수성공의 주인 안평대군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하게 깔려 있다. <운영전>에서 수성공의 궁녀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을 비극적으로 끝냄으로써 왕족(안평대군)의 반인륜적인 처사를 강도 높게 비난한 것은, 이미 궁의 주인이 더 이상 신성하고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비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계축일기>, <인현왕후전>, <한중록> 등 궁중문학 작품이 조선조 후기에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처럼 임진왜란 이후부터 싹트기 시작한 국민들의

33) 김용숙, 앞의 책, 200면.

후기 사회변화를 맞이하여 관가들이 관청이나 조정의 통제에서 벗어나 私組
織의인 성격을 띤 새로운 형태의 敎坊을 창설·운영하는 모습을 포착하고 있
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와 병행하여 기녀와 모가비의 의식의 변화를 잘 구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 동안 학계에서는 주제나 작가의식의 측면에서 <삼선기>는 “조선시대
양반들의 호색성에 대한 풍자”,²⁾ “李朝의 신분적 질곡과 봉건적 가치관에 대
한 풍자 및 文治主義에 대한 비판”,³⁾ “봉건양반에 대한 평민의식의 관철”⁴⁾ 등
을 구현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들 연구는 저마다 연구 시각과 분석 과정을 달
리하였지만, 대부분 <삼선기>가 양반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보여주는 작품이
라는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이렇듯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삼선기>의 主役群인 훈풍과 홍도화·유지연 兩妓의 적대적인 관계, 혹은 양
반과 평·천민의 대립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삼
선기>에 이러한 성향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들 논의는 훈풍과 兩妓 양자의
조화 관계를 놓침으로써 작품 해명에 있어서 지나치게 도식적인 시각을 견지
하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여 <삼선기> 출현의 배경이 중세에서 근
대로로의 이행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논의가 나오기에 이르렀다.
<삼선기>가 “관념적인 도학자적 삶과 현실에만 집착하는 세속적인 삶이 적
절히 조화된 모습의 이상적인 삶”⁵⁾ 내지는 “전통적 도덕관의 붕괴 및 새로운
가치의 회구”⁶⁾ 등을 담아낸 작품이라는 논의가 그것이다. 이들 논의에 이르
면서 점차 주역군인 훈풍과 兩妓의 관계를 대립관계로 보려는 시각을 어느
정도 탈피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논의는 아직 훈풍과 兩妓 양자의 조화

2) 김기동, 삼선기 해제, 『현대문학』 54호, 1959.

3) 이석래, 삼선기연구, 『성신여대 논문집』 10, 1979.

4) 김종철, 배비장전 유형의 소설연구, 『관악어문연구』 10,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5.

김종철, 중세 해체기의 두 웃음-〈배비장전〉에서 〈이훈풍전〉까지- 『관소리의 정서와 미학』, 역사비평사, 1996.

5) 이원수, 삼선기의 종합적 고찰-소설사적 위치설정을 곁하여-, 『문학과 언어』 7, 문학과 언어연구회, 1986.

6) 이문규, 삼선기연구, 『선청어문』 16·17 합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988.

의 과정을 천착하는 시각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밖에 여성의 시각에서 바라본 연구가 있다.⁷⁾ 이 연구는 여성 특히 兩妓의 시각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신선하였으나, 그 내용이 기존 연구와 그리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춘풍 중심의 논의로 되돌아가 춘풍의 행위가 “일상을 초월한 환상적인 삶을 추구한 것”이라는 연구가 있다.⁸⁾ 춘풍이 兩妓와 맺은 일련의 행위가 신흥교방의 출현 및 신흥 교방세력에 대한 미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간과한다면, 춘풍의 삶이 환상적인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을 토대로 형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상의 논의는 <삼선기>가 이들 춘풍과 兩妓의 조화 과정을 담아내고 있는 점을 간과하였으며, 그로 인해 <삼선기>의 작품적·시대적 의미를 간파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논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조선후기 채절소설의 변이양상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춘풍과 두 기녀의 애정결합을 “시정적 삶의 방식과 상업정신의 승리”라고 하여,⁹⁾ <삼선기>의 시대적·사회적 의미를 추출하는데 성과를 남긴 연구가 나왔다. 이 연구는 <삼선기>의 발생적 양상이 조선후기 신흥교방의 출현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논의는 <삼선기>의 미학적 특질이 신흥교방의 自己 合理化·美化에 있음을 간과함으로써 여전히 이 작품의 해명에 수정한 여지를 남기고 있다.

필자는 선행 연구를 받아들여 그 한계를 극복하여, <삼선기>의 미학적 특질이 신흥교방 세력의 자기 합리화·미화에 있음을 구체적으로 추적하기로 한다. 이를 해명하기 위하여 첫째, <삼선기>는 공모와 내기가 공모하게 결합되어 있는 여타의 세태소설과는 달리, ‘공모·내기의 파괴’라는 구성상의 특징을 보여준다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둘째, <삼선기>의 ‘공모·내기의 파괴’라는 구성상 특징은, 조선후기 官妓 세력이 私組織化·商業化하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신흥교방이 대두되고 있던 사회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

7) 심치열, 삼선기연구, 『성신어문학』 3, 성신여대 어문학연구회, 1990.

8) 이상규, 삼선기연구-구조적 특징과 작가의식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29, 고려대학교, 1990.

9) 박일용, 조선후기 채절소설의 변이양상과 그 사회적 의미(下), 『한국학보』 52, 1988.

으며, 궁극적으로는 신홍교방의 자기 합리화·미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살펴보기로 한다. 셋째 그리고 교방의 ‘自己 合理化’라는 <삼선기>의 미학적 특질은 그 이면에 근대로의 이행 과정에서 시대적·작품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규명해보기로 한다.

2. 구성상 특징 : 풍자와 휘절의 분리

<삼선기>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도덕군자 이춘풍은 벼슬을 거절하고 여색을 가까이하지 않는다. 이춘풍이 흥계원에서 한량들에게 잡혀 억지로 술을 먹게 되는 곤경에 처하였다. 兩妓 홍도화·유지연이 춘풍을 휘절하기로 하고 한량들에게서 춘풍을 넘겨 받았다. 兩妓는 선비로 남장하고 춘풍의 제자가 되어 일 년 정도 수학하였다. 춘풍이 두 선녀로 가장한 홍·유 兩妓에 의해 휘절당하고 兩妓의 풍류를 수용하였는데, 수년 후 춘풍은 음률에 능통하고 오입이 능란하게 되었다. 춘풍은 평양 교방을 창건하고, 홍·유 兩妓를 각각 최우 수석으로 삼았다. 교방에 끼지 못한 심일청(육경선) 일당의 무고로 춘풍이 귀양가고 교방은 해산되었다. 신임 감사의 생일 잔치 때 기생들이 해배되어 오는 춘풍을 맞이하러 갔다가 감사의 분노를 사서 춘풍과 홍도화·유지연 등 5인이 귀양갔다. 평양 감사는 춘풍의 행적을 알아본 후, 춘풍에게 교방 사업을 권유하였다. 춘풍은 감사의 권유를 거절하고 兩妓와 함께 대성산 아래에서 여생을 지냈는데, 세상에서는 이들을 “地上三仙”이라 일컬었다.

대체로 남성의 휘절을 담아내고 있는 휘절담이나 휘절소설의 경우, 한 관아의 지방 관장과 그 관아 소속의 기녀가 공모하여 서로 내기를 걸고 여색을 멀리하는 남성을 휘절·풍자하는 구성을 보인다. 그런데 <삼선기>는 휘절담과 휘절소설의 기본 골격인 지방관과 기녀의 공모·내기 형식에서 탈피하는 구성을 보인다.

<삼선기>에서는 휘절음모자인 지방관이 나타나지 않은 채, 기녀 홀로 남 주인공을 휘절한다.¹⁰⁾ 물론 흥계원에서의 한량의 무리가 춘풍에게 욕을 보이

10) <삼선기>가 휘절구조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한 기존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일용, 「조선시대의 애정소설」(집문당, 1993), 413면.

던 중, 마침 그 장소에 나타난 兩妓 홍도와·유지연이 춘풍을 인계함으로써, 한량과 기녀가 晝絶 공모의 흔적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량과 兩妓는 공모하여 晝絶하고 풍자하는 것으로 結構되어 있지는 않다. 다른 晝絶소설에서는 晝絶 대상을 풍자하려는 공모자들이 공통된 의도를 지닌 상태에서 晝絶이 진행되는데, 이와는 달리 <삼선기>에서는 그 공모·내기 구조가 깨어지면서 공모자 없이 기녀 단독의 힘으로 晝絶이 수행된다.

엄밀히 말하자면, <삼선기>는 晝絶구조가 깨진 것이 아니라 공모·내기 구조가 깨진 것이다.¹¹⁾ 공모·내기의 구조가 깨진 상태에서 한량들과 홍·유 兩妓의 역할도 서로 달라지게 된다. 한량들에 의하여 춘풍에 대한 풍자가 이루어지고 兩妓에 의하여 춘풍의 晝絶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역할이 분담된다. 즉 晝絶과 풍자가 분리되는 것이다.¹²⁾ 공모와 내기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는 晝絶 대상에 대한 풍자로 줄거리가 귀결된다면, 공모와 내기가 깨뜨려진 <삼선기>의 경우에는 풍자의 성격이 변질·약화되고 마침내는 소멸되고 말며, 그에 따라 晝絶의 양상이 새롭게 부각되기에 이른다.

기존 연구에서는 晝絶과 풍자의 분리를 간과함으로써 <삼선기>의 대립이 양반과 평·천민(기녀)의 대립이라고 보았는데, 이점은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晝絶과 풍자의 분리는 <삼선기>의 주된 틀이 춘풍과 한량 사이의

여세주, 「남성晝絶소설의 실상」(국학자료원, 1995), 195면.

- 11) 김중철이 이미 공모·내기 구조가 깨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김중철, 앞의 논문, 211면.)
- 12) 이석래 교수는 이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삼선기>의 諷刺는 ① 孿生과 蕙蘭패, ② 孿生과 紅·柳 두 妓生과의 대조에서 각기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이 부분을 언급하였다(이석래, 앞의 논문, 73-74면 참조). 필자는, 이러한 이석래 교수의 연구 성과는 다른 연구에 비해 탁월하며 이 연구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음을 밝혀둔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이석래 교수는 <삼선기>가 “풍자와 晝絶의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홍·유 兩妓에게 惡戯가 없었다는 것은 풍자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兩妓에 의해 이루어진 毀節을 풍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석래 교수는 한량들이 춘풍을 풍자하는 대목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에 반해 춘풍에게 욕을 보였던 한량들이 다시 홍·유 兩妓에 의해 ‘잡놈들’로 불렸듯 한량들이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소홀히 하였다. 이로 인해 兩妓의 풍류계 정화희식이 간과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결구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춘풍과 兩妓의 화해구도에 있는 것임을 시사한다.

그럼 풍자와 왜절이 분리되는 양상을 상세히 고찰해보기로 한다. 먼저 한량들에 의해 춘풍이 풍자되는 것을 보자. 춘풍은 명문귀족의 자손이며 도학자로서 이름난 선비다. 한량들은 공자를 도척보다 못한 인물로 비하하고 맹자를 도둑으로 욕설하고 종자와 안자 그리고 주자의 학문은 사람을 굶주리게 할 뿐 실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폄하한다. 이어서 한량들은 다음과 같이 신랄하게 비판한다.

우리는 아직 벼슬을 못하였거니와 만일 과거하면 명수사를 지낸 후라도 소위 이조라나 발급장인가 저의만 혼자 맡아두고 벼슬 지내어 아전 삼전만 지내도 우리네의 절을 굶은 놈의 자지같이 곳곳이 앉아 받고 나이 저의 한 아비 동갑이라도 의례이 하대하고 가진 교만을 다 부린다니 그런 발꼬락을 저절 놈의 새끼가 어디 있으며 도흥대 학흥베는 하늘이 제수하였는지 저의 혼자 차지하고 사인교 평인교자는 포도청에 갇힌 모양이라 우리 보지도 아니하나 우리 못하게 하움이 절분하웁고 도포조차 저의만 입으니 도무지 육주가리가 나서 못 견디겠으니 그런 개자식들이 어디 있겠삽 … 선생님은 무슨 뽕죽한 피로 정승의 증손자요 판서의 손자요 판서의 아들로 벼슬에 뜻이 없어 쪼그리고 앉아 밤낮으로 공자 맹자 탕자인 시전 서전 단전이니 하고 앉아 무엇을 팔아먹고 좋은 벼슬을 시켜도 아니하시니 그렇게 싫은 벼슬 우리나라 좀 시켜 주시오¹³⁾

한량들은 조선사회의 문인 일반에 대해 풍자하는 도중에 춘풍을 비판한다. 문무 차별과 중직 독직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노소를 가지지 않는 반말투를 일삼는 문인들을 꼬집는다. 다음으로 한량들은 窟路가 열려 있으면서도 벼슬길에 나가지 않는 춘풍의 도학자적인 삶이 위선적이라고 비꼰다. 현실적으로 벼슬길이 막힌 한량들의 눈에는, 춘풍이 벼슬을 거절하며 도학자의 길을 걷는 것은 교만한 삶으로 보였고, 그러한 태도는 문인들의 가중된 특권의식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에 한량들은 춘풍에게 욕설을 퍼붓고 강짜를 부리면서 술을 억지로 먹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한량들에게 봉변을 당하고 있는 춘풍을 보고 왜절을 자칭하고 나선

13) <삼선기>, 253-255면.

이는 바로 홍도화·유지연이다. 그러나 이들 兩妓는 춘풍을 취절하려고 하였지만 한량들과 공모하여 풍자하려 들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춘풍을 처음 보고 단번에 그의 인품과 외모를 흠모하는 대목에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옥같은 얼굴에 도화색을 띠었고 그린 듯한 살췌에 반월같은 옥륜이 반치었고 돌을 원만한 천장에 원산같은 눈썹이 팔자로 빗기었고 두렷한 단봉 안에 효성같은 광채 조요하고 단사로 짙은 듯한 입살에 검은 수염이 다문 다문 나고 … 동탕 작약한 태도와 단정 현양한 풍채와 쇠락 정대한 기상이 천만인 중 제일이요 천상천하에 으뜸이라 여러 잡놈들이 무수히 조롱하되 박힌 듯이 끓어 앉아 조금도 동요치 않으니 엄위한 형용과 반가운 마음을 이기지 못할러라!¹⁴⁾

兩妓가 보기에는 춘풍을 놀려대는 한량들이야말로 “잡놈들”이었고, 춘풍은 외모와 풍채가 빼어난 흠모의 대상이었다. 그에 따라 兩妓는 한량배의 손에서 춘풍을 구해내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兩妓의 취절 의도가 춘풍을 풍자하려는 데 있지 않고 다른 데에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兩妓의 취절 의도는 일차적으로 애정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춘풍이라는 인물은 한량배가 보기에는 위선과 가식의 인물로서 풍자의 대상이지만, 홍도화와 유지연 두 기생에게는 흠잡을 데 없는 애정의 대상이다. 그런데 兩妓의 입장에서 보아 춘풍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다름 아니라 그 문제라는 것은, 춘풍의 도학자적인 면모가 부각될수록 기녀들이 춘풍을 애정의 동반자로 맞이하는 길이 멀어져 간다는 것이다. 기녀와 도학자의 지향점이 서로 합치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兩妓가 춘풍을 자신들의 배필로 삼기 위해서 취한 방도가 춘풍을 毀節하는 것이었다. 兩妓가 춘풍이 도덕군자의 면모를 강하게 지닐수록 그에 비례하여 兩妓의 취절 계획·행위가 치밀해진다. 일련 동안 남북차림의 제자 생활, 전국 유람 권유, 神仙說 논쟁, 假仙界 설정, 선녀와의 애정 관계 등 일련의 숙임수 과정을 밟으며 兩妓는 춘풍을 취절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춘풍이 보여주는 도덕군자의 모습이 兩妓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부정 일변도의 성향을 띠는 것인가 라는 점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¹⁵⁾

14) <삼선기>, 261면.

춘풍이 도덕군자의 면모를 강하게 지닐수록 兩妓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도덕 군자상이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도덕군자의 성향이 일체 부정되지는 않았다. 前述하였던 바, 兩妓에게 춘풍의 도덕군자 성향을 비슷한 한량들이 '잡놈들'이었고 도덕 군자상을 보였던 춘풍이 오히려 마음에 끌렸던 것이다. 또한 兩妓는 치밀한 속임수를 통해 춘풍을 꾀절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춘풍의 도덕군자 성향을 마음에 들어 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兩妓에게 있어서 춘풍의 도학자적 성향을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여색을 수용하기만 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었다.

<종옥전>, <배비장전>, <지봉전>, <오유란전>과 같은 다른 毀節小說에 서라면 남주인공에 대한 꾀절이 호색성 폭로와 위선 풍자로 結構된다. 그러나 <삼선기>에서는 춘풍의 호색성 및 위선과 가식은 구현되어 있지 않으며, 그에 따라 한량에 의해 부여된 이춘풍에 대한 풍자의 성격이 미약할 뿐 아니라 그나마 완전히 해소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3. 신흥교방의 自己 合理化·美化 양상

지금까지 춘풍에 대한 풍자와 꾀절이 깨져 있는 <삼선기>의 구성적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러한 작품 구성의 특징이 신흥 교방의 自己 合理化라는 미학적 특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흥교방의 自己 合理化의 모습은 춘풍의 性格 및 意識의 변화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또한 흥·유 兩妓의 自意識의 구현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
- 15) 대부분의 선행 연구자들은 춘풍의 도덕 군자상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까닭에 兩妓에 의하여 춘풍의 풍자가 이루어졌다는 결론에 이르거나, 이 춘풍이 한량에 의해 풍자되는 부분을 작품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바라보기도 하여 평천민에 의하여 양반이 풍자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견해와 입장을 달리한다.

1) 춘풍의 意識 변화 과정에서의 합리화·미화

두 기녀의 의도대로 춘풍의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춘풍이 교방 모가비로서 손색이 없는 자로 태어나게 되는 과정을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춘풍의 성격 내지는 가치관의 변화는 다음 세 단계의 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춘풍이 현실과는 담을 쌓고 살아가는 脫俗的 道學者의 모습을 취하던 단계이다. 둘째는 춘풍이 兩妓에게 毀節 당하게 되면서부터 風流를 수용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는 도학자와 풍류남의 양면을 갖춘 춘풍이 風流界에 몸담음으로써 기존의 기녀 수청 풍속과는 다른 새로운 성격의 교방, 즉 풍속을 정화하는 교방을 설립·운영하는 단계이다.

이 세 가지 단계에 맞추어 춘풍에 대한 인물 평가의 변화가 뒤따른다. 춘풍에 대한 평가는 처음에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다음은 작품의 전반부에 언급된 춘풍에 대한 인물 평가 대목이다.

천성이 고상하여 부조의 부귀를 붙의라 하고 아우들의 대소과 할 때에 보기 싫어 피해다니니 혹은 칭찬 왈 이모는 천생 연골학자로 도학이 고명하고 기상이 탁월하니 일후에 국가주석지신이라 하고 혹은 인물 아까운 괴물이라 하되 이모는 도무지 들은 체 아니하고 옳다 그르다 말이 없이 종일 꿇어앉아 경학에 잠심하여 밥먹기를 잊고 잠을 자지 아니하고 부모를 늣도록 피하지 못함을 한하여 기일을 당하면 전철후철을 재계하고 … 외당은 빈객이 가들하고 세상의 세리와 공명 외논인고로 그 변화함을 괴로이 여겨 종용한 방을 치우고 혼자 있어 문밖에 나지 않으니 집안 사람이라도 가보지 아니하면 그 얼굴을 보지 못하고 부부의 인분을 모르는 것이 아니로되 침식을 잊는 지경에 어찌 다른 생각이 있으리요 이러므로 취실한 지 십여 년에 내외지정을 아주 모르더라¹⁶⁾

춘풍은 도학자로서 ‘국가주석지신’감이라 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되는가 하면, ‘괴물’이라 하여 부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춘풍이 “괴물”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勢利와 功名을 멀리하고 심지어 결혼 십여 년 동안 부부간에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오로지 경학에만 전념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작품

16) <삼선기>, 250-251면.

서두의 인물 소개 대목에는 춘풍이 긍정, 부정의 이중의 평가를 받는 인물로 제시된다.

작품 서두의 인물 소개 대목에서 제시된 춘풍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흥제원 한량배의 시각에 의하여 그대로 지속된다. 그런데 한량들의 역할이 작품 전개 과정에서 연속되지 못하면서 춘풍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사라지게 된다. 한량배가 사라진 자리를 용도화·유지연 兩妓가 대신함으로써 춘풍의 도학자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새롭게 제기되기에 이른다. 남장차림으로 춘풍의 제자가 된 兩妓는 가까이 춘풍을 대하면서 그의 도학자적 성품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도학자다운 성격에 풍류남아로서의 성격이 가미된다면 兩妓에게 춘풍은 더 없이 바람직한 인물이 된다. 일련의 치밀한 계획 실행, 예컨대 일년 동안 남복차림의 제자 생활, 전국 유람 권유, 神仙說 논쟁, 假仙界 설정, 선녀와의 애정 관계 등 일련의 계획 속임수 과정을 밟으며 춘풍은 점차 풍류남으로 변화되기에 이른다. 다음은 假仙女로 변장한 兩妓에 의해 경직된 도덕주의자 춘풍이 태도가 비판되는 부분이다.

인간은 천상과 달라 물색이 으뜸이어늘 부귀를 초개같이 여기사 부드께 받자온 골육을 억지로 음지에 말려 삼십 전 운택한 거부를 끓어 앉아 골리고 초발부용 같으신 용색을 중병든 사람 같이 혈색을 저상하시고 공연이 험한 의복과 나막신으로 세월을 보내시니 그 무슨 악형이오며!7)

兩妓는 춘풍의 지나친 금욕주의적 생활 태도가 부모로부터 받은 골육을 음지에 말리는 것으로 진정한 효도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이어서 兩妓의 이러한 반박은 춘풍에 대한 풍자로 나아가지 않고 춘풍에게 풍류생활을 수용하도록 이어진다. <종옥전>, <배비장전>, <지봉전>, <오유란전>과 같은 다른 段節 小說에서라면 남주인공에 대한 계획이 호색성 폭로와 위선 풍자로 이어지지 만, <삼선기>에서는 兩妓가 춘풍의 도학자 면모를 긍정시하고 그를 풍류가 넘치는 자로 변화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풍류의 권유는 두 기녀의 개인적 성욕 내지는 애정욕 차원에서 비

17) <삼선기>, 293-294면.

못한 것이기도 하지만, 조선시대의 일상적인 풍류의 차원에서 비롯한 것이다. 특히 風流가 양반의 전유물에서 중인 이하 일반인으로 확대되어 가던 조선 후기 사회의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라는 것이 兩妓의 주장이었던 것이다.

兩妓의 취절 속임수로 말미암아 일상적인 풍류 현실에 동화된 춘풍은, “남자가 한번 난봉은 예사니 한번 호강이나 하고 흠씬 잘 놀다가 오십에 사십 구년 그름을 깨달음도 대장부의 사업이로다” 라고 하여 기생의 모가비가 되기를 마다 않고 세속적·향락적인 화류계에 뛰어들다. 이로써 춘풍은 풍류관을 수용하기에 이르고 일대 변신을 꾀하게 된다.

이생은 옥소를 차고 홍량은 비파를 차고 유량은 거문고를 차고 채향은 행금을 차고 채란은 양금을 차고 화답하니 오음육률이 화합하여 태평기상이 응용하더라 한 곡조를 마치고 홍류 양량이 노래를 하거늘 이생이 거문고로 화답하니 천생 기재라 배우지 않아도 한번 보면 무릎통지하니 아깝다 천승인군이 휘우지 못하던 이학자를 요마한 양계 여자가 호뽀호뽀를 주물러 성경현전은 간다 보아라 하고 청가묘무에 침혹하여 추월춘풍에 혼령이 들락날락하더라 수년이 지나니 음율에 모르는 것이 없고 오입 속이 능통하여¹⁸⁾

춘풍은 거문고에 능숙하고 음률과 오입에 능통한 자가 된다. 춘풍에게서 도학자로서의 면모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고 오로지 풍류남으로서의 면모가 부각된다. 그런데 춘풍이 兩妓에 의하여 풍자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았음을 이미 지적하였거니와, 춘풍의 도학자적인 면모 그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작품 후반부에서 춘풍이 풍류계를 정화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도학자적인 성향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兩妓에게 춘풍의 부적절한 모습은 현실 생활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춘풍의 “경직성”이었던 것이다. 그러한 춘풍의 경직성이 兩妓에 의하여 소거되었을 때, 춘풍은 도학자로서의 교양, 그리고 출중한 외모, 달통한 음률 실력, 능통한 오입 등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갖추게 된다. 도학자적 성향과 풍류적 성향을 겸비하게 된 춘풍은 서울 교방의 모가비 장락하로 대표되는 여타의 모가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출중한 모가비로 부상하게 된다.

18) <삼선기>, 308-309면.

평양 교방 '관서제일루'는 춘풍과 홍·유 兩妓가 평양 한복판에 세운 수백 칸 규모를 갖춘 교방이다. 정당에는 춘풍이 거하고, 좌수석 홍도화는 강선루에 거하며 이십이 방을 거느리고 우수석 유지연은 수선루에 거하며 이십이 방을 거느리며, 중앙 만화당은 장광이 삼십 칸으로 이십사 교방이 모여 연습한다. 춘풍은 지나치게 경직된 탈속적 자세를 버리고 세속적 풍류 생활을 받아들이면서 兩妓와 함께 평양의 교방을 중심으로 淫風 일색인 풍류계를 정화한다. 도학자에서 기생 모가비로의 일대 전환과 춘풍의 풍류계 정화가 뒤따르면서 평양 교방은 인근의 풍류가들에 의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에 이른다.

<삼선기>의 서사전개 과정 중 앞부분에 끼여 있는 於陵仲子 고사가 있는데, 이 고사는 신홍 평양 교방 설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於陵仲子는 명환 거족의 후예로서 세속의 부귀영화가 싫어서 於陵 땅에 은거하면서 짚신을 삼고 아내는 길쌈을 하며 가까스로 연명해 가다가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도학자로서의 체통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던 인물이다. 그는 맹자로부터 지렁이라고 볼릴 정도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는데, <삼선기>에서는 그의 부정적인 면모가 더욱 강조된다.¹⁹⁾ 於陵仲子에 대한 비판적 서술은, 현실적 여건과 처지를 외면하는 도학자 춘풍에 대하여 비판의 기능을 지니며, 반면에 모가비로 변모하는 춘풍에 대하여 동조의 기능을 지닌다. 즉 於陵仲子에 대한 비판은 시대성·현실성을 상실한 도학자 일변도의 생활태도를 벗어나 시대에 부응해야 함을 역설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춘풍이 모가비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시류에 적합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춘풍의 체절 과정은 교방의 自己 合理化·美化와 표리관계를 이룬다. 평양 교방의 입장에서 보면 도학자를 모가비로 삼은 것은 淫風을 일삼는 다른 기녀나 기녀 집단과는 달리 멋과 풍류의 격을 높인 것이 된다.

2) 홍·유 兩妓의 自意識의 구현 과정에서의 합리화·미화

지금까지 춘풍의 성격과 의식 변화를 언급하였거니와, 춘풍의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홍·유 兩妓의 강한 自意識이 자리잡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19) 이원수, 앞의 논문 참조.

없다. 사실 춘풍의 의식 변화는 춘풍 개인의 각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홍·유 兩妓의 자의식이 표출·실현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삼선기>는 춘풍의 의식보다는 홍·유 兩妓의 의식이 실현되는 양상을 보인다. 두 기녀의 의식 실현이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것에 비례하여 그들에 의해 세워진 교방이 미화된다.

홍·유 양기의 자의식 구현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홍·유 兩妓의 자의식은 먼저 애정회구의식으로 포착된다. 兩妓는 평안도의 명기들이지만 노류장화로서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마음에 드는 군자를 만나 함께 일생을 모시기로 작정한 자들이다. “지조가 특출하되 이미 기생 출신인고로 마지 못하여 행공거행하나 항상 울울하여 사람을 구하던” 두 기녀는 “감사 수령은 세력으로 압제하고 호화자제와 오입장자들은 노류장화로 다부되”²⁰⁾ 지조를 꺾지 않은 여인들이다. 이들 兩妓는 마음에 드는 군자를 만나기 위하여 거금을 들여 妓籍에서 이름을 삭제하고 서울로 향하여, 교방과 만조백관의 잔치자리 등을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다. 마침내 이들은 흥제원에서 봉변 당하는 춘풍을 발견하고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일생을 춘풍에게 의탁하고자 한다.

둘째 홍·유 兩妓가 추구했던 일이 새로운 교방 창설이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들은 처음부터 풍류주도의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할 만한 남성을 구하고자 하는 애정회구의식을 실현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교방 창설·운영의 중심인물이 되고자 하는 풍류주도의식을 실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兩妓가 원하였던 군자는 현실 생활과 동떨어진 경직된 도덕군자가 아니라 이태백과 같이 풍류를 아는 군자였다.

이에 兩妓는 치밀한 계교를 짜서 춘풍을 毀節시켰으며, 마침내 “이학자의 혼신이 양랑의 농락 중에 들어 손오공의 금강봉같이 능대능소하더라”²¹⁾ 라는 서술자의 발언과 같이, 풍류가 넘치는 교방의 모가비로 거듭나게 하였다. 이들 兩妓는 새로운 교방 창설의 중심 인물이 바로 자신들이어야 한다는 自意識을 지닌 인물들이었던 것이다.

20) <삼선기>, 257면.

21) <삼선기>, 311면.

셋째 兩妓는 풍류주도의식을 지녔으나 한편으로 풍류가 지나치게 향락적으로 흐르는 사태를 바로잡아보고자 하는, 풍류계 정화의식을 지닌 자들이었다. 兩妓의 풍류계 정화의식의 실현을 통한 평양 교방에 대한 미화양상은 평양 교방의 적대 세력이 惡類로 설정되는 것에서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수통인 노영철은, “본대 간교하고 영리하여 본부 시행은 진선진미케 하기로 사또 동네마다 거행하되 한번도 꾸지람 한 마디 아니 들었고 돈은 많이 모으되 제 아버가 주색이 심하여 용전여수하기로 매이 간구하여 허전장년을 군인고택을 많이 하던” 인물이다. 또한 심일청(옥경선)은, “인물은 출중하나 천성이 음란하여 행위 부정하기로 교방에 섞이지 못하고 자모 논박을 당하여 춘풍을 공연히 원망하는” 기생이다. 兩妓가 평양 교방을 창설하기 전, 심일청은 오직 재물을 탐내는 기녀였으며, 평양 교방이 창설된 후 종전과 같이 재산을 모을 수 없게 되자 춘풍과 兩妓를 포함하여 춘풍을 귀양가게 하였으며, 또한 사또 자제를 미혹하여 돈을 갈취하였다.

심일청과 같이 지나친 실리추구의식을 보여주는 기녀 이야기는 15세기 이후 야담에서 널리 확인된다. 기녀가 한 남성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속이지만, 실상 재물을 탐내 다른 남성과 정분을 나누는 내용을 담은 이야기가 있으며,²²⁾ 또한 기녀에 속아 재산을 탕진한 장사치가 기생집에서 심부름꾼 머슴으로 전락하는 모습과 심지어 기녀가 다른 남성과 놀아날 때 구들장을 데우는 어리석은 장사치의 모습을 그려낸 이야기가 널리 전한다.²³⁾ 이러한 모습은 <이춘풍전>의 평양기 추월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22) 15세기 <朴生이야기> <모란이야기>, 16세기 <한생이야기>, 그리고 17세기 초엽 <양생이야기> <민애이야기> 등을 들 수 있다.(<乙巳藏朴生>, 『용재총화』(『국역대동야승』 1, 184-189면) / <牧丹奪財>, 『춘담해이』(『고금소총』, 민속원, 1958, 203-204면) / <韓生兼筆>, 『어면순』(『고금소총』, 민속원, 1958, 90-92면) / <南原有梁生者>, 『어우야담』(만중재본) / <惑妖妓冊室逐知印>, 『청구야담』 권 11(규장각본))

23) 18, 19세기의 <영생이야기> <허생이야기> <화로이야기> <생금이야기> <돌이야기> <울공금이야기>(〈楊洲에 一廉姓者〉, 『과수록』(『고금소총』, 민속원, 1958, 339-341면) / <許生者方外人也>, 『계서야담』(규장각본) / <識寶氣樓樓取爐>, 『동야회집』 권4(가람본) / <獲生金父子同宮>, 『청구야담』 권18(규장각본) / <輸一石父子叙倫>, 『동야회집』 권7(가람본) / <俗諺有兀孔金八字>, 『어우야담』(장서각본)).

물론 兩妓 역시 실리를 추구하였던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兩妓는 “대인군자를 구하면 노소귀천을 묻지 않고 섬길” 의지를 실현시켜 妓籍에서 빠질 만큼, 또한 평양교방을 설립할 만큼의 재물을 축적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삼선기>는 兩妓의 실리추구의 모습을 구체화하지 않으며, 그 반대로 실리추구에 눈 먼 채로 남아 있는 심일청 같은 기녀를 악류로 그려낸다. 이 점이 <삼선기>에서 신흥교방에 대한 합리화 내지는 미화의 한 양상이라 할 것이다.

춘풍이 모가비가 되어 평양 교방을 이끌어 나갈 때에 평양을 중심으로 평안도와 황해도와 淫風敗俗이 일시에 정화되고 진정한 풍류가 세워지게 된다. 평양 교방을 설립한 뒤로 “범절이 정대하고 행위 정직함으로 평양 일관이 심박하여 풍속이 일변하니 부정한 일을 부끄러하고 기생의 범절이 조출하여 난잡한 행장을 못하니 상하남녀가 표준을 삼는” 평양 사회가 되었던 것이다. 마침내 신인 평양 감사에 의해 평양의 교방 사업이 “청아한 사업”으로 인정받기에 이른다. “기생과 교방의 가치상승이라는 사회사적 의의를 발견”할 수 있을 만큼,²⁴⁾ <삼선기>는 음악적 재질을 갖춘 기녀 무리가 자긍심을 표출한 작품이라 할 것이다.

요컨대 兩妓의 풍류주도의식과 풍류계 정화의식이 실현되는 과정을 통하여 <삼선기>는 신흥 교방세력의 자기 합리화·미화를 작품의 미학적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4. <삼선기>와 신흥교방의 설립 및 그 시대적 한계

1) <삼선기>와 신흥교방 설립의 시대적 위상

조선시대 기녀제도는 각 고을의 관기에게 가무를 가르쳐 女樂의 구성원을

24) 이석래, 앞의 논문, 72면. 또한 이석래 교수는 “妓生이 兩班 벼슬아치와 遊俠容의 官能快樂과 遊樂의 도구로만 있던 賤分에서 벗어나 藝能人으로 價値上昇을 豫度한 時代性을 인지할 수 있다”(앞의 논문, 74면) 라고 하였는데, 이는 <삼선기>에 대한 탁월한 평가라 할 수 있다.

삼는 것이 설치 목적이었다. 그런데 양반과 기녀의 지나친 풍류·향락 생활로 말미암아 기녀제도는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근원이 되었다. 이에 조선 초기부터 기녀제도 혁파 논의가 빈번하였음에도 불구하고²⁵⁾ 기녀제도는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기녀제도의 모순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었다. 남존여비, 신분차별의 조선사회에서 여성이자 천민이며 특히 妓役을 담당해야만 하였던 기녀는 사회적 질곡의 희생자였다.

국가에서는 기녀에게 수청이나 음악 교육 등의 妓役을 의무로 부과하였을 뿐이고 생계는 책임지지 않았다. 여타의 천민과는 달리 힘든 일을 하여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기녀는 그 대신 자신의 미모와 가부 및 시화 등의 재주에 의지하여 지방사신이나 지방관의 수청을 들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기녀는 妓役 이외의 시간에는 私적으로 웃음과 재색을 팔아 재물을 챙기기도 하였다. 간혹 기녀들이 쌓은 재물은 기녀가 신분적 한계를 뛰어넘어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지향할 수 있는 물질적·경제적 토대가 되었다.

기녀들의 재물 추구 행위가 일화나 야담의 소재거리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재물을 탐내어 못생긴 호색 관리에게 야양떠는 관비 이야기, 재물만을 노리는 기생 이야기, 기생에게 털려 거지로 전락하게 된 상인의 이야기, 기녀가 재물을 탐하여 동침하였다가 그 사실이 발각되자 오히려 그 간통 사실을 밝힌 자에게 뒤집어씌운다는 이야기, 그리고 기녀들의 재물 추구 행태가 풍자되는 이야기 등으로 다양하게 전해온다. 이렇듯 재물과 관련된 기녀 이야기가 다양하게 전해오는 것은 기녀의 축재 행위가 조선시대, 특히 조선후기에 이르러서 사회적으로 일상화되었음을 반증한다.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축재한 기녀들은 돈을 들여 妓籍에서 빠질 수 있었다. 부유한 기녀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많았다.²⁶⁾ <삼선기>의 두 기녀

25) 필자는 기녀제도 혁파 논의 상황을 상세하게 정리해 둔 바 있다.(졸저, 「기녀담 기녀등장소설 연구」, 월인, 2000, 47-52 면(기녀제도 혁파논의 항목) 참조)

26) 조선시대에 임금의 특별 명령이 내려지거나 또는 지방 관청의 운영 자금이 고갈되었을 때 그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녀의 속량을 허락하였던 아주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기녀의 속량이 국법으로는 금지되어 있

홍·유가 그러한 기녀에 해당된다. 홍·유 兩妓는 각각 성천과 안주 지방의 명기로서 “수천 금씩 들여 기안에 제명하였던”²⁷⁾ 자들이었다. 이들이 妓案 제명에 썼던 거금은 부모로부터 얻은 것이 아니다.²⁸⁾ 兩妓는 평안도에서 문필과 음률에 뛰어난 열 아홉 살 기생들로서 그들이 감사 수령 등의 지방관, 호화 자제와 오입장이 등의 유혹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미루어,²⁹⁾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었음이 추정된다. 兩妓는 그 동안 자신들이 모은 재물로 妓籍에서 除名하였을 뿐 아니라 나중에 춘풍과 함께 평양 교방을 세울 자금을 댈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재물을 추구하는 기녀의 이야기를 담은 일화나 야담 등에서 기녀들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蓄財 행위가 대개는 비판적으로 그려졌음을 앞서 지적하였거니와, 기녀의 축재 행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일화·야담의 서술자가 기녀의 재물추구 행위를 비롯하여 금전적 실리를 추구하는 세태를 부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삼선기>에서는 기녀의 축재와 기녀 속량 행위가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기녀가 새로운 삶을 현실적으로 개척하는 모습으로 구현된다. 조선 후기의 재물추구가 일반화된 시대적 상황에서 기녀들 중에는 나름대로 교방을 조직화·체계화하고자

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전기부터 기녀 속량의 위법행위가 암암리에 행해졌는데, 때로는 이러한 기녀 속량이 사회적 문제거리가 되어 물의를 일으켰고, 이러한 위법행위가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더욱 일반화되어 갔다. 예컨대 <영조실록>에 따르면, 1769년 영조는 기첩들을 모두 原籍으로 쇠환하게 하고 지방 고을의 기녀로 첩을 삼은 자들을 색출하여 문관·무관·유생·음관 등 많은 자들을 절도로 정배하는 등 엄벌에 처했다.<영조실록> 권112, 45년 4월 신미·임신). 그러나 곧 영조는 지나쳤음을 후회하고 그들 모두를 해배하고 말았다.<영조실록> 권113, 45년 8월 병인., 11월 정미).

27) <삼선기>, 257면.

28) 홍도화와 유지연 두 기생이 훗날 춘풍을 꾀질시킨 다음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고 춘풍을 섬기게 해 달라는 소원을 말하고 다시 편지글로 자신들의 처지를 상세히 밝힌 부분을 보면, 그들의 부모는 뒤늦게 외동딸을 나온 자들로서 딸들에게 목숨을 의지하던 자들이었다.<삼선기>, 299-301면 참조.)

29) 홍·유 兩妓가 기생 행각을 벌이면서 行下나 窠幣를 받았다는 내용이 작품 세계에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삼선기> 이외의 다른 기녀등장소설에서도 주인공 기녀가 行下나 窠幣를 받았다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다.

하는 세력이 등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교방의 설립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삼선기>이다.

<삼선기>에 앞서, 모가비와 기생이 모여 하나의 무리를 형성하였던 가능성은 <秋妓臨老說故事> <星月每道三可笑>에서 찾아볼 수 있다.³⁰⁾ 각각 기생 추월과 성산월이 겪은 일을 회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비슷하다. 전자의 경우를 들어보기로 한다.

公山 기생 秋月은 가무와 자색으로 이름이 높아 尙方에 들어왔는데, 그녀가 나이 들어 잊지 못할 옛 일 세 가지를 이야기하였다. 이상서택 연회에서 가객 이세춘, 금객 김철석, 명기 계섬, 매월 등이 부르는 잠가를 부르고 있던 중에 마침 들어온 어느 재상이 이 장면을 알잡아보지 않아 정인군자로 보였지만, 며칠 후 그 재상이 이들을 초청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였는데 그 재상은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전날 이상서택에서 부르는 것과 같지 않다고 꾸짖었다. 이에 추월이 그 뜻을 헤아리고 기생과 가객이 서로 눈짓하여 전혀 음됨에 맞지 않게 노래를 부르자, 그제야 재상은 노래를 잘한다고 칭찬하였다. 끝난 뒤에 술과 안주를 내주었는데 박주와 잔포뿐이었다. 연미동의 가난한 무변이 이들을 불렀는데, 가보니 단칸방에 외한도 없고 다만 土階만 있는데 그 위에 자리를 깔고 鄉客 몇 명과 더불어 있었으며, 두어 곡조가 끝나자 들음 직하지 못하다고 하고서는 탁주 한잔으로 내보냈다. 세검정에서 연회를 하였는데 가난한 시골 선비가 추월을 불러 자신은 창원의 아전이라고 밝히면서 돈 한 냥을 주자, 추월이 마음속으로 전하에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고 달로는 그대가 주는 뜻이 감사하여 받지 아니하나 받은 것과 같다고 사양하였다. 추월은 재상의 매물찬 대우와 무변의 얄은 의취와 시골 선비의 어리석음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 이야기는 가객과 기생 무리를 청하여 즐긴 후 寔幣에 인색하였던 세 남성에게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을 술회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내용 중에 가객 이세춘, 금객 김철석, 명기 계섬, 매월 등이 어우러져 재상이나 무변 그리고 시골 아전에게 사사로이 불려가 흥을 고취하였던 조선 후기 풍속의 일면을 보여준다.

기녀가 조선 초·중기에는 사사로이 寔席에 불려 가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일이 비교적 은근히 행해졌다. 이들 무리가

30) <秋妓臨老說故事>(규장각본 「청구야담」 권4), <星月每道三可笑>(가람본 「동야취집」 권6).

私宴에서 선호되었던 것은 조선시대 내내 妓女와 樂人이 국가와 임금에게 관련된 여러 행사를 위하여 동원되거나 혹은 외국 사신을 접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급예술을 익혀왔기 때문이다.³¹⁾ 이러한 음악적 재능을 갖춘 기녀나 악인이 처음에는 철저하게 장악원 중심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조선후기에 이르면서 이들의 장악원 소속성이 약화되고 사조직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조선후기에 이르면서 이들 기녀와 악인들은 일종의 음악 전문인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18세기, 19세기 조선후기에 이르면서 사회·경제적 변동과 함께 妓女와 歌客과 琴客 등의 무리가 사적으로 연회에 불려갔던 일이 표면화·일상화되었던 것이다.³²⁾

조선후기에 중인층이 음악 향유자로 부상하면서 중인층의 음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객과 악사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들은 주로 중인층이거나 시정의 미천한 부류들이었으며, “조선후기에 해당하는 이 단계의 역사에서 음악인들은 아직 자율적 예술활동을 위한 ‘시민적인’ 물질 기반까지는 획득할 수 없었”지만, 일정하게 어느 정도의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³³⁾ 전문 歌客 이세춘과 琴客 김철석이 “歌琴之伴”을 구성하고 명기 계섬·매월·추월과 합세하여 상서, 재상, 무변, 시골 선비 등에게 가서 풍류를 타주었던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보다 조직화된 기녀·모가비 무리의 형태가 <삼선기>의 춘풍 및 兩妓의 교방세력이라 할 수 있다. 서울 교방의 모가비 장락하와 평양 교방의 모가비 춘풍이 악기를 잘 다루는 자, 춘풍이 음악과 음물에 달통하는 자로 그려진다. 장락하와 이춘풍의 모습은 위의 이야기의 가객·금객

31) 줄 저, 「기녀담 기녀등장소설 연구」, 월인, 2000, 제 2장(조선시대 기녀제도와 기녀풍속) 참조.

32)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권두환, 「조선후기 시조가단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5.

강명관, 「18·19세기 경아전과 예술활동의 양상-閭巷文化에 대한 일고찰」, 「한국근대 문학사의 쟁점」, 창작과비평사, 1990.

김현식, 「안민영의 가집 편찬과 시조 문학 양상」,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9.

줄 저, 「기녀담 기녀등장소설 연구」, 월인, 2000.

33) 박희병, 「조선후기 예술가의 문학적 초상」, 「한국고전문물전연구」, 한길사, 1992, 340-347면.

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교방의 우두머리인 모가비로의 보다 발전된 형태를 보여준다. 그리고 서울 교방의 기녀 영산홍을 도수적으로 하는 기녀들의 모습, 평양 교방의 홍·유 兩妓를 주축으로 하는 기녀들의 모임 등이 한층 조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모가비 출현과 교방의 상업화 현상은 훗날 구한말 기녀 계층의 세분화 현상과 기생 조합 등의 출현으로 이어진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기녀가 되는 범위는 천민 계층에서 양민 계층으로 확대되어 갔으며 구한말에는 기생의 명칭이 일패, 이패, 삼패 등으로 나뉘어 불릴 만큼 기생 계층이 세분화되었다.

1916년 경에는 모백작이 평양 기생을 모아서 다동조합을 창설하였으며 모자작이 도성 안 삼패의 후원이 되어 신창 조합을 설립하고 삼패를 승격시켜 기생이 되게 하였다. 말하자면 조선시대의 관청소속이었던 “교방”이 점차 상업화되다가 점차 바뀌어 “기생 조합”이 설립되기에 이르렀고 1926년 경에는 “기생 조합”이 일본식 명칭인 “권번”이라 불리기도 하였다.³⁴⁾ 한편 妓夫를 某甲과 妓生組合의 전근대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모갑은 기동서방과 같은 것으로서 모갑 한 명은 수십 명의 기녀를 거느리면서 다섯 명에 하나씩 波子를 두어 誘客과 娼妓의 잔심부름을 맡게 하였다. 이것이 더욱 근대화되고 조직화된 것이 기생조합 즉 권번이었다고 볼 수 있다.³⁵⁾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볼 때 <삼선기>에서 나타나는 홍·유 兩妓와 춘풍이 설립한 평양의 신흥교방은 본격적인 기생 조합이 나타나기 이전에 조선후기 교방의 商業化·私娼化 과정에서 출현한 교방을 모델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 이러한 조선후기의 교방의 세대변화와 맞물려, 춘풍의 의식 변화와 兩妓의 애정회구의식, 풍류주도의식, 풍류계 정화의식 등 실현을 내세운 평양 교방의 자기 합리화·미화는 새로운 풍류 문화를 세우고자 하였던 것이라는

34) 권번으로는 조선권번, 한성권번, 한남권번, 대동권번 등 네 곳이 있었고 권번에 적을 두고 기생 영업을 하였으며, 지방 도시 평양, 해주, 부산, 대구, 진주, 경주 등지에서도 기생 조합을 설립하여 서울과 다름이 없었다.(이능화, 앞의 책, 139-140면.)

35) 현문자, 이조 기녀제도와 생활연구, 『아세아학보』 10, 아세아학술연구회, 1972, 76면.

그 나름의 시대적인 의의가 있다.

조선시대 기녀제도와 기녀 풍속을 바탕으로 가능하였던 양반 풍류생활이 조선후기에 이르면서 중서층과 평민들에게도 확산되는 가운데, 남성들의 풍류의식이나 향락의식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한 시류에서 <삼선기>의 兩妓는 진정한 풍류를 놓치고 지나친 성적 타락과 물질 위주의 흐름을 탈 때, 밖으로는 남성들의 잘못된 풍류 생활 내지는 향락 생활을 바로잡고 안으로는 그러한 시류에 편승하는 실리추구의 기녀들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기녀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근대 전환기에서 차지하는 <삼선기>의 시대적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³⁶⁾

2) <삼선기>에 구현된 신흥교방 창립·운영의 시대적 한계

한편 기생과 모가비 중심의 신흥교방은, 다른 교방세력이나 기존의 기녀들, 즉 신분적으로는 관기이면서 기억에 매여 있지 않은 시간에 재물을 추구하였던 일반적인 기녀들에 대하여 경쟁력을 갖추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업적 성격과 私媾化 성격을 띠고 설립된 신흥교방이 처음부터 그 길을 순탄하게 걸어갈 수는 없었다. 작품에서 드러나는 신흥교방에 대한 방해 세력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 는 기존의 기녀 세력이다. 작품 세계에서 기녀 심일청(옥경선)은 惡類로 형상화되어 있는데, 그녀는 춘풍의 신흥교방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로서 평양 교방세력을 무고하여 유배에 처해지도록 하는 장본인이었다. 이러한 무고를 일삼는 심일청(옥경선)의 악행은, 심일청이 종래의 기녀 풍속에서 이익을 누리왔는데 “제일관서루”라는 신흥교방의 갑작스러운 출현으로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작품세계에서 심일청이 일개 개인으로 그려졌지만 기실은 기존의 방식대로 삶을 꾸려나가고자 하는 기녀를 대변하는 인물, 특히 조직성과 경쟁력을 갖춘 신흥교방 “제일관서루”에 대하여 생존

36) 이에 대해서는 자리를 달리하여 상세하게 살펴본 바 있다.(줄고, 19세기 평·천민 女性의 自意識 구현 양상-〈이춘풍전〉 〈무속이타령〉 〈삼선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제2차 학술발표회』, 이화대 가정관, 2000.4.29. 이 발표문을 학회지에 곧 실을 예정이다.)

의 투쟁을 벌여나간 기존의 기녀를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관기 제도하에서 자신들의 실리를 추구하고 있었던 기존의 기녀 세력은 신흥교방의 창설이 자신들의 실리를 침범하는 세력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관서제일루’는 기존 기녀 세력의 강한 반대와 저항에 부딪혔던 것이다.

다음으로 조정과 관청의 개입이다. 신분제도 특히 기녀제도가 완전히 법적으로 철폐되지 않은 조선시대의 현실적 여건에서, 법적으로 기녀의 귀속권을 지니고 있던 조정 또는 관청의 개입은 신흥교방의 창설과 운영의 걸림돌이었다. 신임 평양감사 흥판서의 연광정 잔치 자리에서 많은 기녀들이 춘풍의 피리 소리를 듣고 춘풍을 맞이하러 宴席을 박차고 몰려가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기녀 수청 풍속이 종래와는 달리 어느 정도 관청의 통제력을 벗어나 있었다. 그런데 신임 평양감사는 기녀들을 혼계하고 그 중에서도 춘풍, 흥도화, 유지연, 유채향, 오채란 등 교방의 핵심 5인을 잡아들여 반월도로 귀양보낸다. 이것은 기녀제도가 사라지는 과도기적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조직화되어 가는 신흥교방의 조직에 대하여 여전히 관권이 개입하여 교방을 장악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임 평양 감사의 행태는 商業化·私娼化되어 가고 있는 교방에 대해 여전히 장악력과 통제력을 지니려고 애쓰는 조선 후기 지방관들의 일반적인 행태이기도 하다.

이처럼 신흥 교방세력은 그 존립의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기존의 기녀 세력과 관청 세력의 견제를 받았다. 그런데 평양 감사가 춘풍과 흥·유 兩妓를 귀양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적을 조사하여 다시 불러들여 교방 사업을 “칭아한 사업”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귀양에서 풀어주며 교방 운영을 지속 하라고 권유하게 된다. 이로써 ‘관서제일루’ 평양교방은 관청의 통제력을 벗어나 사조직화의 길로 들어선 조선후기의 신흥교방의 한 모습을 구현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삼선기>가 교방의 “상업정신의 승리”를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⁷⁾ <삼선기>는 신분에 관계없이 실리를 추구하는 근대 이행기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평양교방은 조선 후기 사회의 사조직적 성격과 상업적 성격을 띤 신흥교방으로서 사회적 공인을 얻

37) ‘상업정신의 승리’라는 용어는 박일용 교수가 이미 언급한 바 있다.(박일용, 앞의 논문 참조).

기에 이른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평양 감사의 신흥교방의 운영 권유가 춘풍과 兩妓에 의하여 거절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된다. 춘풍과 兩妓는 교방 운영을 포기하고 대성산 아래에 들어가 여생을 마친다. 신흥 교방세력은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교방 운영을 통하여 실리를 추구하였지만, 바야흐로 신흥교방 사업이 기존의 기녀 세력과 지방 관리 세력에 의하여 저항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춘풍과 두 기녀가 세상을 등지고 은둔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地上三仙”이란 용어와 그것의 작품적 의미를 눈여겨볼 만하다. 조선시대에는 사회의 풍속 차원에서 선비와 기녀들의 풍류 관계를 비유하여 자신들을 신선으로 자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비유는 중국의 경우에서도, 예컨대 이태백의 풍류생활이 신선놀음으로 불렸던 것처럼, 널리 확인되는 바이다. 이러한 사회 풍속 차원의 문맥에 따라 춘풍과 兩妓가 “지상삼선”이라 일컬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고전소설에서 神仙界는 현실적인 실천력을 드러내지 않고 은둔한 채 당대 현실을 비판하는 기능을 지니기도 한다. 기실 그것은 새로운 가치관이 아직은 현실적으로 수용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지상삼선”은, 춘풍과 兩妓의 신흥 교방세력이 현실적인 저항을 받고 물러서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행적을 미화하여 신선의 행적으로 비유한 것이라 할 수 있다.³⁸⁾

요컨대 춘풍과 兩妓의 신흥 교방 세력은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을 이룰 수도 있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나, 한편으로 스스로 물러나는 모습을 취하여 신흥교방의 발전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평양 교방의 진로의 이중성은, 바야흐로 사조직의 성격과 상업적 성격을 띤 신흥교방이 설립되어 가는 조선후기 사회 상황에서, 아직은 현실적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였던 초창기 신흥교방의 진로의 어려움을 그려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삼선기>는 조직성과 상업성을 추구하는 교방세력이 자신들의 행위를 합理化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신흥 교방세력이 현실적으로 저항을 받고 물러선 것을

38) 이상구는 작가가 <삼선기>를 통해 구현하려고 하였던 삶은 흥·유 양량과 같은 미인과 더불어 세상의 영욕 궁달을 잊고 琴書의 생활에 자족하려는 신선 놀음이었다고 평가하였는데, 본고는 이상구와 의견을 달리한다.(이상구, 앞의 논문 참조).

작품화한 것이다.

이상, <삼선기>에 구현된 신흥교방이 시대적으로 창립·운영의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아보았는데, 이것은 신흥 교방세력을 미화한 <삼선기>의 작품적·시대적 한계를 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삼선기>가 근대로의 이행 과정에서 예술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시정인으로서의 상업정신을 구현하고 있다고 해서 과연 <삼선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즉 <삼선기>에서 구현하고 있는 신흥 교방세력이 여타의 실리추구 기녀와는 다른 풍속 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그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조선후기 사회의 모순과 질곡을 하나씩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기녀들과 모가비의 상업적 성격은 분명히 조선시대의 기녀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에 일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팔고 몸을 파는 행위 그 자체가 지난 시대의 악습을 철폐하는 건전한 방향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기녀제도라는 신분적 악폐에서 벌어진 향락의 수단으로서의 기녀가 이제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조선후기는 일반적으로 상업적 가치가 일상 생활에 부상하던 시기이다. 풍류계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삼선기>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운영 방식과는 달리 조직적으로 상업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성격의 교방이 출현하기에 이르렀다. <삼선기>에 등장하는 兩妓를 비롯한 많은 기녀들은 물론이고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기녀들은 자신들의 신분적 질곡을 벗어나기 위하여 기존의 기녀제도에 정면으로 대척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양반에 대한 旣 종속의 신분적 질서를 철폐하지 않은 재性商品化의 길을 택하여 자신들의 활로를 모색하였던 것이다.

<배비장전>과 <오유란전> 등의 醜絶소설에서는 여색을 지나치게 경원하는 도덕군자형 선비를 기생이 醜絶하고 그 가식과 위선을 풍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봉전>과 같은 醜絶소설에서는 여성 주도의 애정 긍정의 사고를 표방하여 중세의 애정금압에 대결함으로써 미미하나마 근대 지향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삼선기>의 兩妓는 봉건 신분사회의 잔재인 기녀제도에서 비롯하는 양반과 기녀의 풍류 생활의 틀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풍류 행태를 계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한 상업성 추구의 의

도를 은폐하고 신흥교방의 세력이 자신들의 세력 확장을 위하여 기존의 기녀 수청 풍속을 정화한다는 미명을 내세우는 것을 빼놓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기녀들에게 毀節되어 평양 교방을 꾸려나가는 모가비가 되었던 춘풍이 “오직 못난 놈이 무당의 서방 되며 여간 잡놈이 기생의 모갑이 되겠느냐” 라며 自己卑下를 피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교방을 둘러싼 모가비와 기녀 세력이 근대 이행기에서 긍정적인 길을 걷지 않았다고 보는 자기 반성이며, 또한 이것은 조선후기의 신흥교방에 대한 시정의 부정적 시각의 단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삼선기>는 전문 음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표출하며 상업정신을 구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대로의 이행 과정에서 性商品化라는 길로 들어서고 말았던 것이다. 평양 교방의 설립은 신분적 질곡이 경제적 질곡으로 대체되는 한계를 노정하고 말았다. 조선후기의 사회적 혼란 상태에서 기녀 계층은 주어진 신분제도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풍류계를 정화하는 등 교방 운영의 새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 그들이 걸어간 길은 봉건사회의 신분적 노예에서 돈의 노예로 바뀌 놓은 길에 지나지 않았다.

5. 결 론

본 연구는 기왕의 연구들이 <삼선기>가 공모·내기 구조 및 醜절소설의 구조를 벗어나는 구성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면서도 그것의 작품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것에 착안하였다. <삼선기>의 구성상 특징인 공모·내기 구조의 파괴를 제점검하고, 그 작품적 미학적 특질이 교방의 합리화·미화임을 밝혔으며, 마지막으로 근대로의 이행 과정에서 <삼선기>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삼선기> 해명에 임하였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타의 毀節小說에서는 醜절 대상에 대하여 같은 의도를 지닌 공모 자들에 의하여 毀節이 진행되는 것과는 달리, <삼선기>에서는 그 공모·내기 구조가 깨어지면서 醜절이 기녀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춘

풍의 도학자다운 모습은 비판과 부정 또는 풍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흥도화·유지연 兩妓에 의하여 일정하게 수용된다는 것을 읽어냈다.

둘째, 이러한 <삼선기>의 구성적 특징이 평양 교방 ‘관서제일루’에 대한 합理化·美化와 결부된다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과정에서 兩妓의 애정회구의 의식과 풍류주도의식, 그리고 풍류계 정화의식이 구현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도학자로서의 인품을 갖춘 춘풍이 평양 교방의 모기비로 정착되어 가는 일련의 과정은 궁극적으로 교방의 自己 합理化와 관련된다고 보았다.

셋째, <삼선기>에서 나타나는 흥·유 兩妓와 춘풍이 설립한 평양 교방은 조선후기에 교방이 관청의 통제력을 벗어나 商業化·私娼化 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초창기의 私組織的 교방임을 추정해보았다. 이들 신흥교방은 개인적으로 官妓이면서 妓役에 매여 있지 않은 시간에 재물을 추구하였던 일반적인 기녀들이나 또는 다른 교방에 대하여 경쟁력을 갖추려고 했던 것으로 보았다. 그러한 경쟁력 구비는 淫風 쇄신을 통한 풍류계 정화로 나타났음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후기 풍류 생활과 향락 생활에 대한 비판의식을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삼선기>의 작품적·시대적 의의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넷째, 그러나 신흥 교방세력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교방을 설립하고 운영하였지만, 현실적인 저항에 부딪혔음을 알아보았다. 바야흐로 사조직화되어 가는 교방사업이 지방 관료들에 의하여 또한 惡類로 구현된 다른 기녀 세력에 의하여 저항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춘풍과 두 기녀가 세상을 등지고 “地上三仙”으로서 은둔적·도피적 여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지상삼선”의 이야기가 <三仙記>로 作名化되었다고 보고, 이를 둘러싼 사회 상황을 <삼선기> 출현의 발생적 사회 상황으로 연결하였다.

마지막으로, 평양 중심부에 신흥교방 ‘관서제일루’의 창설은 근대로의 이행 과정에 나타난 상업정신의 소산임은 틀림없으나, 상업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것만으로 <삼선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았다. 조선후기 기녀들과 모기비의 상업적 성격의 강화로 말미암아 관청에 예속되었던 기존의 기녀제도를 벗어 던졌을망정, 반면에 기녀가 봉건사회의 신분적 노예에서 돈의 노예로 둔갑한 것에 불복한 모습을 노정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것을 <

삼선기>의 시대적·작품적 한계라고 지적하였다.

참고문헌

<三仙記>(이문당판)(「찰자본고전소설전집」 3, 아세아문화사, 1976).

<英祖實錄>

- 「慵齋叢話」(민족문화추진회, 「국역대동야승」1, 1971).
「破睡錄」(민속학연구소 편, 「古今笑叢」, 민속원, 1958).
「禦眠楯」(민속학연구소 편, 「古今笑叢」, 민속원, 1958)
「村談解頤」(민속학연구소 편, 「古今笑叢」, 민속원, 1958).
「溪西野談」(규장각본).
「東野棠輯」(가람본).
「靑邱野談」(규장각본).
「於于野談」(장서각본)/(만중제본).

- 김종철, 「관소리의 정서와 미학」, 역사비평사, 1996.
박일용, 「조선시대의 애정소설」, 집문당, 1993.
박희병, 「한국고전인물전연구」, 한길사, 1992,
여세주, 「남성醜絶소설의 실상」, 국학자료원, 1995.
이능화, 「조선해어화사」(민속원 영인, 1981).
조광국, 「기녀담 기녀등장소설 연구」, 월인, 2000.

- 강명관, 18·19세기 경이전과 예술활동의 양상-閭巷文化에 대한 일고찰, 「한국
근대문학의 쟁점」, 창작과비평사, 1990.
권두환, 조선후기 시조가단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5.
김기동, 삼선기 해제, 「현대문학」 54호, 1959.

- 김종철, 배비장전 유형의 소설연구, 「관악어문연구」 10,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5.
- 김현식, 안민영의 가집 편찬과 시조 문학 양상,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9.
- 박일용, 조선후기 채절소설의 변이양상과 그 사회적 의미(下), 「한국학보」 52, 1988.
- 박희병, 조선후기 예술가의 문학적 초상, 「한국고전인물전연구」, 한길사, 1992.
- 심치열, 삼선기연구, 성신어문학 3, 성신여대 어문학연구회, 1990.
- 이문규, 삼선기연구, 「선청어문」 16·17(합집), 서울대 국어교육과, 1988.
- 이상구, 삼선기연구-구조적 특징과 작가의식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29, 고려대, 1990.
- 이석래, 삼선기연구, 「성신여대 논문집」 10, 1979.
- 이원수, 삼선기의 종합적 고찰-소설사적 위치설정을 겸하여-, 「문학과 언어」 7, 문학과 언어연구회, 1986.
- 조광국, 19세기 평·천민 女性의 自意識 구현 양상-〈이춘풍전〉 <무숙이타령〉 <삼선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제2차 학술발표회」, 이화대 가정관, 2000.4.29.
- 현문자, 이조 기녀제도와 생활연구, 「아세아학보」 10, 아세아학술연구회, 1972, 76면.

Abstract

A Aspect of the Newly-Rising Gyobang(新興教坊)
Incarnated in the Novel <Samsengky(三仙記)>
in the Latter Term of Choson(朝鮮)

Jo Gwang-Guk

This paper aims at reevaluating <Samsengky> which was written in the latter term of Choson(朝鮮), approximately in the 19 century in Korea. This Korean classical novel incarnated the aspects of the newly-rising Gyobang(新興教坊) which was the group of the 'Kysaeng'(妓生).

Contrary to other novels that have the structure of a union of man's virtue-loss and the satire, <Samsengky> has the structure is broken. Especially a union of conspiracy and a betting is broken. So the character of Chungpung as a virtuous gentleman is not criticized and not satirized, contrarily accepted by Dowha-Hong and Jiyoun-Lyu who are 'Kysaeng'(妓生).

This a specific feature of the <Samsengky> is related with a beautification, or a rationalization of the newly-rising Gyobang(新興教坊) in Pyoung-yang.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this novel Kysaeng's self-consciousness ; consciousness of hoping affection and love, consciousness of the leading Pungnu(風流). And a aspect that Chungpung's character and consciousness are become different. At first he disliked and hated the relation with , later he loves Kysaeng. These features tell us a beautification, or a rationalization of the newly-rising Gyobang(新興教坊) of <Samsengky>.

The newly-rising Gyobang(新興教坊), which two female Kysaeng and

Chunpung set up, is free itself from a public office or a government, and make progress privately. The group of newly-rising Gyobang(新興教坊) strengthen competitive power, comparing with other Kysaeng. This group rejects a lewd act and a material gain.

Nevertheless this group set up newly-rising Gyobang, this group meets with resistance ; a control of a public office or a government, other Kysaeng who likes a material gain as ever. So the newly-rising Gyobang lives as "three ascetics of the world". The title of this work, <Samsengky> comes from this novel's feature, "three ascetics of the world".

The newly-rising Gyobang(新興教坊) is a result of commercialism, and yet we can't evaluate it affirmatively. Because this novel reveals that Kysaeng is free from a slave, but that Kysaeng becomes a slave of money. This is the limits of <Samsengky>.